

유아교육에 명상 접목 신선

교계 유치원 교사 300여명 워크숍 참가 요가·위빠사나 등 체험...새 교육법 제시

불교유아교육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경주 동국대학교 부속유치원(원장 이수경)은 전국불교계 유치원 교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23-24일 경주 동국대에서 불교유아교육을 위한 원장 교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격년제로 개최되어 3회째를 맞는 올해 워크숍의 주제는 불교 어린이 환경 문화 생태환경에 주안점을 두고 다양한 명상을 통한 생태체험으로 불교유아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워크숍에서 이수경 원장은 인사교육의 최고 덕목을 '더불어 살기'라고 제시했다. 이 원장은 유아교육에 불교교리를 자연스럽게 접목시키고, 생태중심의 불교 자연관에 입각해 더불어 살아가기(상생)을 위한 유아교육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인성교육을 위한 불교 생태유아교육의 실천방안'으로 동국대학교 부속유치원이 추진하고 있는 자연친화교육과 다양한 명상 활동을 소개하고, '아이들이 명상활동을 통해 자기 내면을 깊고 맑게 바라보는 시간을 경험하고, 자연과 사람, 사물과의 진정한 관계를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지으로써 주변세계를 되돌아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다양한 명상활동 체험 프로그램이다. 동국대학교 정각원 박사 각성 스님이 요가 아사나와 위빠사나 수행을, 도운 스님이 다도, 그릇·진언 명상 등을 소개했고, 결기 체험명상의 시간도 가졌다.

또 숲 체험 명상, 물 체험 명상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설명도 큰 관심을 끌었다. 그 외 국내 유아교육 전문가들의 국가 유아교육 정책과 환



진언 명상에 대한 도운 스님의 설명을 따라 진지하게 명상하는 유치원 원장·교사들.

경·생태교육·전통문화와 놀이 등을 소개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부산 육연선원부설 육연 유치원 교사 전은주씨는 "다양한 명상체험이 유익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오감을 느끼고 인지하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좋았다"고 말했다.

월정사 삼척포교당 부설 삼척 중앙유치원 정미선 원장은 "은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며, 생태교육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명상 프로그램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지도방안을 배우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구제 전시에 대해서는 "일선 유치원에서 준비하기에 너무 어려운 것 같다"고 지적하고 "일선 유치원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구재를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글·사진/경주=배지선 기자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한국불교 1600년 기념 대불련 문화제 페스티벌

"체감온도 -180℃, 행복한 체험의 열을 속에 빠져보세요."

7월 24일 대구 중구 2·28공원은 무더위를 뚫고 싱그러운 대학생 불자들의 외침과 웃음 그리고 노래가 울려 퍼졌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한국불교 1600년 대회의 프로그램으로 대학생불자들의 문화제 해피 부타 페스티벌(happy buddha festival)을 개최했다. 대구시민과 함께 하는 불교문화체험마당으로 펼쳐진 이날 행사는 전국에서 모인 150여명의 대학생불자들이 10개의 불교문화체험 공간을 통해 대구시민들에게 부처님의 세상을 드러내 보였다. 풍물과 맨스, 컵등, 단주 만들기, 제기차기, 불화 그리기와 사경체험 등 공연 곳곳에서 펼쳐진 각종 불교문화체험은 대구시민들의 더위를 녹여주기 충분했다. 배지선 기자

인드라마 교육센터 개관

지난 6월 서울 종로에서 서초구 양재동으로 사무실을 옮겼던 인드라마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 이하 인드라마)가 7월 29일 교육센터를 공식 개관했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63-10번지 세전빌딩에 위치한 40평 규모의 교육센터에서는 앞으로 웃살링강좌와 불교기독교강의, 불교기초교리강좌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인드라마가 계속 추진해왔던 생명살림불사에 보다 많은 대중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센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02576-1886 유철주 기자)

통령에게 보낸 편지가 길을 끈다.

장경호 기사는 이 편지에서 '평소 소박한 생활신조로서 남자로 태어난 것과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불교를 신봉하게 된 것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항상 감사했다'며 생전 감사의 생활로 귀감이 됐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편지를 받고 박정희 前 대통령은 불교계, 정부, 국회의 대표가 중심이 된 (재)대한불교진흥원을 설립토록 했다. 박병영 기자

시의회 의원, 지관 스님 폭행

한강하구 습지보호구역 지정 설명회서

김포시의회 의원이 지역 스님을 폭행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포시의회 윤문수 의원은 7월 21일 김포 여성회관에서 열린 한강하구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설명회에서 김포 옹화사 주지 지관 스님을 폭행했다. 윤 의원은 개별 제한 등을 이유로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반대했었고 지관 스님은 습지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로 인해 지관 스님은 어깨와 등, 목 부위에 부상을 입어 전지 4주 판정을 받고 현재 부재 중인 제정정형과에 입원해 있다.

지관 스님은 "설명회는 습지지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단상 점거로 끝내 열리지 못했다"며 "의견이 다른 것을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이 안타깝게 여겨"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윤문수 의원은 7월 28일 조

계종 총무원을 방문해 사과 입장을 전했다. 윤 의원은 사회국장 정영 스님을 만나 "지관 스님을 모시고 나가는 과정에서 스님이 다친 것 같다"고 설명하고 "의도적인 생각은 없었으며 스님이 하루빨리 일어나기를 바란다"며 사과문을 조계종에 전달했다. 유철주 기자

'불교와 문화' 7·8월 호 장경호 기사 특집 다뤄

격월간 <불교와 문화>가 (재)대한불교진흥원 설립 30주년을 맞아 설립자인 장경호 기사(1889~1975·大圓)를 다룬 7·8월 특집호를 발행했다.

특히 대한불교진흥원의 재단법인 설립금으로 사용된 장경호 기사의 사재(私財)를 헌납하면서 박정희 前 대

윤리가 사라진 현대 사회 계율 대중화로 문제 풀자

인터뷰 2 계율수행대법회는 지성 스님

"대학 강사가 여대생을 납치하고, 전방부대에서는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지는 등 비윤리적인 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요즘과 같은 현대사회에서 계율(戒律)의 대중화가 더욱 절실합니다."

8월 6일부터 '깨달음으로 가는 길, 계율수행대법회'를 개최하는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은 법회 취지를 이렇게 말했다. 이어 계율이 인간의 삶을 값지고 윤택하게 만드는 생활규범이며, 사회의 온갖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들어 있는 방편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부처님께서는 계율을 미혹의 병에 가장 뛰어난 약이며,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고 생사의 강을 건너는 다리라고 말씀하셨다"며 "이번 법회는 계율을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그 논리적 토대에 보편적 행동규범으로서 계율을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 사회의 안정과 불교도 건설에 한 몫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성 스님이 이번 법회 준비과정에서 가장 신경 쓴 것은 법주와 논찬자이다. 법주들은 불교계에서 잘 알려진 율사 스님들이고, 매회 질문하는 논찬자들도 율을 공부하는 스님들과 석·박사급 교수·강사로 수준 높은 '드림팀'을 구성했다. 지성 스님은 "선을 주제로 한 법회는 전국에서 많이 열리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계율은 외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법회는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물론 사상과 생활의 규범인 계율정신을 일반인들에게 쉽고 정확하게 각인시켜줄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을 당부했다.

지난 2002년 5월말 동화사 주지로 부임한 지성 스님은 취임 초부터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첫 번째로 전국의 선지식 100명을 초청해 100일 동안 법문을 듣는 '백고법회'를 열었다. 이어 어려운 한문으로 된 불교 경전을 일반 대중에게 보편화시켰다는 의미에서 2003년에는 <화엄경> 논간 법회를 병행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화두를 근거로 수행하는 한국불교의 대표적 수행법 '간화선'을 주제로 '담선대법회'를 열어 간화선 수행법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성 스님이 이번 법회를 성공적으로 회향하는 것 외에 임기 전 이루고 싶은 꿈이 하나 더 있다. 대구 동화사를 총림으로 승격시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총무원에 총림 신청을 했다고 밝힌 지성 스님은 "동화사는 선원 강원 율원 염불원 등 총림이 갖춰야 할 수행시설이 다 있다. 동화사를 총림으로 승격시켜 영남불교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시킬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동화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계율수행대법회는 8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총 9회에 걸쳐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통일기원대전에서 열리며 9월 오전 10시 보살계 수계법회로 회향한다. (053)985-4404 김주필 기자



전국 율원장급 스님들을 법주로 동화사 8월 6일~10월 9일 개최

목탁소리

조계종 총무원 노조 설립을 두고 종단 안팎에서 커다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본지 일간 인터넷 신문인 부타뉴스(www.buddhanews.com)에 이와 관련된 기사가 게재되자 수많은 누리꾼들도 노조 설립 찬성과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설립 총무원 노조설립 설왕설래를 찬성하는 누리꾼들은 "총무원 역시 노동자"라며 "다른 종교에서도 노조가 설립된 만큼 총무원 노조 설립은 자연스런 시대적 흐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총무원은 근로자임에 틀림없지만 그에 앞서 삼보에 호의하고 신도들의 정체를, 포교를 위해 종단의 제도에 의해 관리하는 역할의 소임자"라며 반박했다. 반대 누리꾼들은 또 "총원종법 내에서 재가총무원들의 지위나

역할을 높이는 방식이 선행돼야 한다"며 순서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찬성 누리꾼들은 "원활한 의사소통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선 노조가 최선의 선택"이라며 현실적 대안을 제기했다.

이 외에도 찬성측은 "총무원정에 연구원 수준인 총무원들에게 먼저 제대로 된 급여를 주고 신심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반

대측은 "노동자이길 원한다면 더 나은 대우를 해 주는 일반 기업체에 가는 것이 옳다"고 대꾸했다. 이처럼 총무원 노조 설립을 두고 출가와 재가뿐 아니라 재가와 재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상반되고 있다.

하나의 사물에 대해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동우(취재부 기자)

불기 2549년 불교성지순례 회원을 위한 특별기획상품 중국 오대산(문수보살) 불교성지순례

수험생 합격기원 및 소원성취 대법회 봉행

요금 ₩860,000 ▶▶ ₩699,000 (3박4일) ₩960,000 ▶▶ ₩749,000 (4박5일)

※대한항공 특별전세기 운항

- 영국 정부 운항허가 조건 -

※문화관광 ₩699,000(3박4일)

중국 오대산 문수보살 불교성지순례

- *오대산 중대(자장술사 수행처)
- *용연목탑-1056건립(중국 최고의 목탑)
- *운강석굴(중국3대석굴)

출발일(2005년)

- 1차: 8월 20일 ~ 8월 24일(4박5일)
- 2차: 8월 24일 ~ 8월 27일(3박4일)
- 3차: 8월 27일 ~ 8월 31일(4박5일)
- 4차: 8월 31일 ~ 9월 03일(3박4일)

권득전

수험생 학부모에게 문수보살호신불 중정 세계적인 명상 음악가 나왕체축과 명상캠프(3차)

- 신청마감 : 출발 10일전
- 신청금 : ₩100,000
- 입금구좌 : 우리은행 006-173407-13-048 예금주 한진관광
- VISA요금 : ₩24,000 별도
- 담당자 : 한진관광 본사 이기범 차장 TEL. 02-726-5799 한진관광 부산지점 김문철 과장 TEL. 051-463-2115 한진관광 마포대리점 차영철 팀장 TEL. 02-717-8085 불교방송 성지순례 담당 최효상 TEL. 02-705-5302



공동 판매여행사 / 대승항공 730-0202 실크로드 720-9600 혜초여행 733-3900 아제여행사 730-4008

주관 (주)한진관광 후원 대한항공 BBS 불교방송 중국 산서성 여유국 / 중국 오대산 불교협회

중국 오대산 문수보살 불교성지순례

일자	출발/도착	교통편	시간	주요 행사 일정	식사
제01일	인천 태원 오대산	KE9853 전세기	08:00 10:10 11:35 19:00	인천국제공항 집합 대한항공편으로 인천 출발 태원 도착후 점심공양후 남대 정황사 (문수보살 회향한곳) 오대산 도착후 저녁공양 호텔 투숙	조 중 현지식 석
제02일	오대산	전용버스	전일	HOTEL 은도호텔 또는 동급호텔 수상사 법회후 아침공양 중대(자장술사 수행처) 점심공양 중대(자장술사 수행처) 연교사 순례 저녁공양 및 호텔 휴식	조 중 현지식 석
제03일	오대산 대동	전용버스	전일	HOTEL 은도호텔 또는 동급호텔 아침공양후 현종사, 합원사, 대라정(케블카) 점심공양후 대동으로 이동 저녁공양 및 호텔 투숙	조 중 현지식 석
제04일	대동 태원	전용버스	전일	HOTEL 이경국제호텔 또는 동급호텔 아침공양후 운강석굴, 용연목탑 견학 태원으로 이동 발마사지후 저녁공양 및 호텔 투숙	조 중 현지식 석
제05일	태원 인천	KE9854 전세기	07:00 08:00 12:50 15:55	HOTEL 이경국제호텔 또는 동급호텔 아침공양후 전사 순례 태원출발 인천공항 도착후 해산	조 중 현지식 석

중국 오대산 문수보살 불교성지순례

일자	출발/도착	교통편	시간	주요 행사 일정	식사
제01일	인천 태원 오대산	KE9853 전세기	08:00 10:10 11:35 19:00	인천국제공항 집합 대한항공편으로 인천 출발 태원 도착후 점심공양후 남대 정황사 (문수보살 회향한곳) 오대산 도착후 저녁공양 호텔 투숙	조 중 현지식 석
제02일	오대산 대동	전용버스	전일	HOTEL 은도호텔 또는 동급호텔 수상사 법회후 아침공양 중대(자장술사 수행처) 연교사 순례 현종사, 대라정(케블카) 순례 태원으로 이동 저녁공양 및 호텔 휴식	조 중 현지식 석
제03일	대동 태원	전용버스	전일	HOTEL 이경국제호텔 또는 동급호텔 아침공양후 운강석굴, 용연목탑 견학 태원으로 이동 발마사지후 저녁공양 및 호텔 투숙	조 중 현지식 석
제04일	태원 인천	KE9854 전세기	07:00 08:00 12:50 15:55	HOTEL 이경국제호텔 또는 동급호텔 아침공양후 전사 순례 태원출발 인천공항 도착후 해산	조 중 현지식 석

*상기 일정은 출발 당일 항공사 스케줄 및 현지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